

## 화백세상(和白世上)을 열자①

▣ 一沙權正孝

(한국인재개발원 회장·애국운동연합교우 올림)



전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유물은 볼도끼 밀개 규개 훅날 망치 푸르게 몸돌등 610점을 한국선사문화연구원(원장 이용조=한국전통문화학교 초빙교수)이 공개했다. 이곳에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발굴된 유물 유적이 4000여개나 된다니 세계인이 놀랄 일일이요 재야서지(在野書誌) 사학자들이 꾸준히 주장해온 우리 한국의 역사가 허사아닌 실사임을 입증할 수 있지 않은가? (서울신문 2008. 12. 25)

그리고 10여년전에 호주에서 75,000년 전의 압각화(巖刻畫)가 발견 되었다고 한다 [호주대사관], 이를 보아 우리의 상고사(上古史)도 허사가 아님을 멀지않아 밝혀질 것이다. 재야사학자들이 줄곧 주장해온 8,200 여년전의 홍산문화(紅山文化)가 최근 중국 요하유역에서 유물과 유적등이 발견됨에 따라 한·중·일·몽골·러시아 5개국 사학자들도 이를 실사로 인정하고 현재 각 나라 고고사학자들은 동북삼성(東北三省), 몽골지역, 바이칼호 주변에서 경쟁이나 하듯이 遺物 과 유적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산둥대 유봉군(山東大 劉鳳君) 고고미술학연구소 소장이 산둥성 창락현(昌樂縣)에서 발견된 골각문자(骨刻文字(尙廣德)이 2004-최근까지 지역주변에서 수집 소장)를 최근 중국 고고학자들을 초청한 세미나에서 갑골문자(甲骨文) 이전에 대부분형태의 골각문자가 산둥성 창락현 지역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혔고 사회과학원 왕우신(王宇信)등 은상殷商 문화학회 관계자 5명은 유 소장의 학설에 동의 하였다. 당시 산둥지역은 한민족을 포함한 동이족(東夷族)들이 집단으로 거주 하였으므로 이 문자는 동이문자로 봐야한다고 주장 했다. [문자의 근원을 알

면 “和白”이해]

문자의 모양도 고대 상형(象形)문자인 동이문자 계열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 골각문자’는 중국의 최초 문자로 알려진 갑골문자 보다 1000여년 앞선다. 고대 상(商)나라 서울인 은허(殷墟)(허난성 안양현)에서 1889년 발견된 갑골문자는 동이족의 골각문자가 발전한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고 유 소장은 강조 하였으며 중국 역사를 지금보다 1000년 이전으로 올리는 고고학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높이 평가 하였다 [홍콩 文匯報—2008.10.21],

화교거상(華僑巨商) 대부분은 옛 상·은(商·殷)(동이족이 건국)나라 후손들이고, 이들 중 다수가 배탈국(倭濠國) 명망전후 세계 곳곳과 아시아 전역으로 이주한 뒤 오랜 세월동안 타고난 상술로 경제권을 장악하여 부를 축적했다. 이들이 거금을 본국으로 송금하여 10년간의 문화혁명으로 파폐해진 경제를 살려 30년간 급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되었다. 현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내 걸고 있고 식자들이 공문화하고 있는 인재육성(人材育成) 녹색성장 상생경영 융합시대를 열려면 和白을 올바르게 알아야 실현할 수 있다.

#### 二. 본인

한국은 2차대전 종전뒤 국민개인소득 36불 신생국가 140 여개국중 최빈국에서 세계사 초유 10대 부국으로 우뚝 섰고 경이로운 나라 발전(경제와 민주주의)에 세인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국 70 년사다. 이는 결코 기적은 아니다.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우리 선현들이 물려준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화백”정신이 우리들 심신에 잠복해 있다가 때를 만나 분출한 것이요 광복이후 위정자와 관.군.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국내외에서 수많은 희생(人命財產 犠牲)을 치른 위에 일궈낸 값진 대가요 그 결실이다.

넓은 이념에 매달려 있는 몰치각한 정치인 欺世盜名(기세도명=세상을 속이고 이름을 훔치는 것)자들은 삼불가(三不可)를 내세워 서울 올림픽 개최를 반대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는가? (다음호에 계속)



위진남북조 시대는 유교적 속박을 벗어 던진 시대였다. 한나라 때에 통치자들은 유교의 신분론을 이념으로 삼아 사회통합을 시도하여서 사람은 각기 사회적, 정치적 신분에 따라서 예의를 지키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신분을 타고 났느냐가 중요하였다. 좋은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은 일생동안 좋은 대우를 받았던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비록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하여도 더 좋은 대우를 받지 어려웠다. 사회적으로는 커다란 속박이었다.

그러던 것이 후한 말에 이를 참다못하여 황건의 무리가 군사를 일으켰고, 한나라 시대 400년간 지방하던 유교적 신분질서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계속되는 새로운 질서를 잡기까지는 오랜 기간 자유경쟁의 분위기가 지속되었다.

이제 한나라 시대 같은 가치개념도 형식도 무너졌고, 어떤 것도 나를 얽어 뱉수 없다는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러한 분위기를 가장 고상하게 표현한 것이 이른 바 죽림칠현(竹林七賢)의 등장이다.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모상을 만나서 마음에도 없이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슬픈 척하면서 통곡하는 것은 거짓이고 허위이나 이러한 형식은 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 중 사람이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바로 분상(奔喪)하지 않고 친구와 두던 비독을 끌기까지 마지 않았다.

비독을 마치지 않고 집으로 달려간다고 한들 어머니가 살아날 것도 아닌데, 두던 비독을 그만 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 뿐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평소대로 술 한 동이를 마시었다. 모두 그 동안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즉시 분상해야 하고, 고기를 먹거나 술을 마시지도 말라는 유교의 상례 형식을 깨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가 어머니의 영전(靈前)에서 곡(哭)을 할 때에는 얼마나 애똥하게 울었는지 논에서 피눈물이 났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비록 전혀 오는 유교적 규범을 지키지는 않았

## 철없는 황제의 형식 깨기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 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지만 오히려 형식만 지키고 실질이 없이 겉도는 곡(哭)을 하는 것보다 훨씬 사 람들에게 감동을 안겨 주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알맹이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형식을 깨는 일을 서슴없이 진행하였다. 마치 형식만 깨면 알맹이가 드러날 것처럼.

이러한 상황은 위진시대 400년간 거의 전 시대에 걸쳐서 나타난다. 그 가운데 남조 제(齊)에서는 율림왕이 이러한 짓을 하다가 이를 참다못한 명제(明帝) 소난(蕭綱)에게 쫓겨났다.

그렇다면 명제는 이를 바로 잡아야 했지만 그 역시 무도하다고 율림왕을 쫓아 내긴 했지만 그것은 정권을 얻기 위하여 이를 빌미로 삼았을 뿐 바로 잡은 생각은 아예 없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을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다. 결과 그가 죽자 그 아들 소보권은 아버지 영구가 태극전에 있는 것을 싫어하여 빨리 내다가 잡사지내려고 하였다.

또 곡을 할 때가 되면 목이 아프다고 곡을 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머리인 태중대부가 들어와서 곡을 하다가 건이 벗어지자, 대머리가 그대로 들어나자 그 모습이 우스웠던지 막 황제에 오른 소보권은 ‘독주(禿鷲, 대머리인 새)가 울려고 왔구나!’ 라고 하면서 크게 웃었다. 아버지의 영구 앞에서 한 것이었다. 물론 후에 소보권은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난다.

형식을 깨버리려는 것은 겉을 싸고 있는 형식 때문에 속에 든 알맹이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식을 깨면 알맹이가 보이기 때문에 형식을 깨는 일이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보권은 형식을 깨는 데는 일조 했지만 그 속에 알맹이도 없여졌다.

그래서 이는 잘 못된 행동인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도 형식을 깨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띈다. 그러나 돋보여야 할 알맹이는 어디에도 없는 듯하여 마치 위진시대의 철없는 황제모습을 보는 듯하다.

(다음호에 계속)

###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총재단회비
△권오형(부총재) 100만원
△권송성(부총재) 100만원
△권중준(감사) 100만원
△권영훈(감사) 100만원

소계 400만원

▣ 중무위원회비
△권오순(영양 부정공파) 20만원
△권기덕(안동 별장공파) 20만원
△권대길(구미 대종원) 20만원
△권기만(안동 정조공파) 20만원
△권오탁(안동 정조공파) 20만원
△권윤성(안동 종윤공파) 20만원
△권혁기(봉화 북야공파) 20만원
△권기웅(문경 부정공파) 20만원
△권영역(안동 부정공파) 20만원
△권기태(안동부호장공파)20만원
△권혁근(대구 좌윤공파) 20만원
△권용호(포항 좌윤공파) 20만원
△권호규(안동 대종원) 20만원

소계 260만원

▣ 대의원회비
△권혁용(서울 대종원) 10만원
△권성갑(순천 추밀공파) 10만원
△권순덕(안동 부정공파) 10만원

소계 30만원

▣ 찬조금
△급사중공파총회 10만원

합계 700만원

# 대한민국 청년대학생연합 한국사 국정화지지 기자회견

10월 13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대한민국에국시민연합,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유관순어머니회, 애국단체총협의회가 정부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정책을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야당과 좌파세력은 친일미화, 유신독재 부활이라며 이에 대해 강도 높은 공격이지만 우리는 친일과 유신독재를 미화한 내용을 역사교과서에서 배운적이 없다. 오히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과 김일성에 대한 우호적 내용과 대한민국 이승만, 박정희의 독재에 대해서만 열심히 배웠다.

우리 대학생의 생각으로는 현행 김일정 교과서들이 반국가, 친북, 자학사관으로 점철되어 있어 ‘다양성’이라는 명분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지 오래이며 휴전종이라는 특수성까지 고려하면 더 이상 현행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한다.

또한 서용교의원이 조사한 “한국교과서 집필진”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교과서 집필진에는 국보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함세웅 신부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출신, 법외노조 판결받은 전교조 출신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전 출판사에 걸쳐 대학 동문, 선후배끼리 뭉쳐 역사교과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지정작용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들이 편찬한 현행 교과서는 철저하게 반국가적인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김일정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 하지 못한다.

대부분 한국사 교과서는 해방 후, 한국사의 출발점을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에 두고 있다. 여운형은 임시정부를 반대하고 소위 “진보적 민주주의”를 정치이념으로 내세운 사람으로 박헌영과 함께 인민공화국을 세운 사람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1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따라서 진보 민주주의를 주장하던 통진당은 해산되었다. 그런 데 교과서에서 이들을 대한민국의 출발점으로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이런 짓은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

둘째, 현행 김일정 한국사교과서 대한민국 건국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해방 직후 1945년 9월에 이미 스탈린은 북한에 단독정부 수립을 지시했고 이듬해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북한을 한반도 전체 공산화를 위한 기지로 만들었다. 이승만은 이 같은 공산화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자유를 지키고,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남한에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교과서에서 북한의 관점을 서술하는 것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방해한 4·3사건과 여수·순천 사건을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것은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

셋째,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미군이 자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소련은 자치를 인정 한 것으로, 마치 소련군이 해방군인 것처럼 왜곡 기술하고 있다.

해방 후 북한에는 조만식을 중심으로 건준이 만들어졌으나 소련은 강제로 이것을 해산시키고, 공산당 주도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철저하게 지배했음이 최근 명백한 증거로 드러났다.

남한에는 여운형, 박헌영이 소수 공산당을 중심으로 인민공화국을 건설했고, 미군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만일 미군의 이런 조치가 없었다면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것은 반미를 즐기치게 주장하는 북한 정권의 이념공작이 그대로 적용 된 것이다. 이런 것은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

넷째,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대한민국은 노동자와 농민이 주도하는 인민공화국이 아니며, 모든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건국은 북한 독재체제에 대한 자유진영의 수호이며,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에 반대하는 건전한 사유재산권의 보장이고, 종교자유 박탈과 스탈린/김일성 우상화에 대한 저항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건국 이념에 대한 내용이 없는 교과서는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

이런 교과서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학생들을 격리시켜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동생들은 이런 좌편향 교과서로 수업을 받으며 정심에 파괴되고 있다. 12년 내내 반국가, 전교조 교육받고 자라 학교 밖에서 진실을 알게 된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잘 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가장 반하는 교과서를 만들어놓고 민주를 입에 담은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성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좌편향세력과 전교조의 세뇌교육에서 간신히 벗어난 우리 대학생들도 ‘헬조선’이니, ‘불치육반도’니 하는 말들을 모르는 바 아니며 위에서 사다리는 걷어차고, 개천에서 용 나가는 더욱 힘들어진 다. ‘흙수저’로 태어나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계층 간 장벽 앞에서 좌절한 것도 한 두 번이 아니다. ‘흙수저’ 물고 태어난 귀족들이 간말 한 체득 상속받고 불로소득 하는 것을 보면 세상이 마냥 아름답게 느껴지진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이며, 가장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나라이다. 불평하러면 끝없이 불평거리가 보이지만, 제대로 현대사를 알면 우리가 이런 자유의 땅에서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한 없이 감사하게 된다. 지금 당면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폄하하고 왜곡하는 좌편향 반국가세력이 만들어 낼 세상에 비하면 천국일 것이다.”



였고 임진왜란 때 사복司僕으로서 창의를 하여 의사義士를 거느리고 해남현간 변응정과 함께 웅치전에 참전하여 많은 적을 참살하고 순절하였다.

·김윤출신 김수金粹·김정金精 형제도 웅치전에 친족과 가동家僮을 이끌고 참전하여 여섯 번이나 적을 크게 이겼으나, 건지봉에서 습격하는 적을 맞아 당당히 싸우다가 마침내 순절하였다.『진안군지』

·김응배金應培(남원)는 장사 천여 명을 이끌고 웅치전에서 많은 적을 참살하여 사과司果에 제수되었다.

·김나복金羅福(화순 능주)는 친족 10여 인과 가동 100여 명을 이끌고 웅치전에 참전하여 많은 적을 참살하였다. 전주 싸움에서 적의 말 10여 필을 빼앗기도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